

## 한국과 중국 대도시 거주자의 여가태도와 여가경험 비교\*

고 동 우<sup>†</sup>

대구대학교 관광학부

본 연구는 여가문화 수준이 다르다고 가정되고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가태도와 여가경험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전반적 여가태도, 주관적 여가경험, 가장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 유형을 비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주관적 여가 경험의 하위 차원별로 여가태도에 관련된 패턴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도시 거주자 중 한국인 300명과 중국인 2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6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여가태도는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인 집단에서 더 높게 지각되었고, 여가경험의 하위 차원별 지각 수준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가장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 유형도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가 경험의 하위 차원별로 여가 태도에 관련된 패턴도 두 집단에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여가 태도와 경험에 대한 국제간 비교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논의에서는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여가태도, 여가경험, 전반적 여가태도, 주관적 여가경험, 여가활동 유형

---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교신저자 : 고동우, dwko@daegu.ac.kr

현대의 후기 산업 사회를 여가 문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제성장의 진도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특성이 있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업 사회에서 후기 산업 사회로 진입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진입하였다는 평가에 대해선 대부분이 동의한다. 결국 여가 문화는 현대 사회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 5일제 근무제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변화, 건강과 웰빙 추구 등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 등이 현대인의 여가 생활을 변모시키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가 활동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여가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가치도 달라지고 있다(고동우, 2007). 예를 들어 『2006 여가백서』(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여가소비지출비는 가구소비 대비 약 5% 선이며, 매년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p.27).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며, 사회가 경제적 문화적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 만큼 현대인의 생활에서 여가 경험 혹은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가 활동의 비중이 증대되는 사회 현상은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여가개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여가 태도, 여가경험, 여가동기와 제약 혹은 치료 등의 주제는 매우 빈번하게 다루어져왔다. 특히 심리학적 관점의 여가학자들은 여가참여자의 개인적 수준에서 여가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참고, 고동우, 2002; Iso-Ahola, 1980; Kleiber, 1999; Mannell & Kleiber, 1997). 여가 심리학자들의 관심분야를 단 몇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 수준의 여가 경

험이나 태도를 이해하므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되어 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여가 태도와 여가 동기, 여가 경험, 여가 정체성 등은 중요한 주제들이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를 이 지면을 통해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여가 행동에 관련된 모든 주제는 기본적으로 여가활동의 경험 내용에 관련될 것이며, 그래서 여가활동의 경험은 여가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가태도는 경험의 선행 변수인 동시에 결과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여가활동의 유형은 경험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여가활동 유형을 포함한)은 여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여가태도와 여가경험 수준은 결국 그 사회가 여가사회로 진입한 수준을 가늠하는 준거가 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 발전 수준이 다른 나라별로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여가문화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 관광을 포함한 여가 문화 현상은 일종의 산업으로 부각되어 왔고, 후기 산업 사회에 이룰수록 그 비중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후기 산업 사회에서 여가 현상은 단순히 행위자의 주관적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한다. 그래서 경제적 발전 수준이나 문화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여가소비 시장 혹은 여가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가늠하는 진단하는 하나의 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할 때, 특히 중국의 성장은 우리를 위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와 경고가 대두하는 만큼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 수준을 비교하여 여가 문화 및 여가 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의 질적, 양적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수행되었으며, 비교 결과를 통해 양국의 여가 문화를 진단하고, 여가 소비 산업의 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다.

### 여가 태도

전반적인 여가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태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여가 경험과 참여를 결정하는 일종의 여가 제약 요인이거나 선행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Jackson, Crawford, & Godbey, 1992; Mannell & Kleiber, 1997, p.337). 그래서 여가 태도는 여가 경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즉, 김정근, 1998; Beard & Ragheb, 1983; Crandall & Slivken, 1980; Neulinger & Breit, 1969). 여가 태도나 여가 경험에 대한 분석은 개인의 여가 제약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삶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재현·박정훈, 2001). 그러므로 여가태도나 여가 경험에 대한 분석은 여가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될 뿐 아니라 여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태도(attitudes)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었으나,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일반적으로 어

떤 대상에 대한 일종의 선호도(preference)로 정리된 경향이 있다(즉, Fishbein & Ajzen, 1975; Petty & Cacioppo, 1981; Eagly & Chaiken, 1993). 태도의 개념이 1차원이나(즉, 정서) 3차원이나(즉, 인지, 정서, 의도)의 논쟁이 비교적 오랫동안 있었으나, 그것이 몇 차원이든, 태도라는 개념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좋거나 나쁜, 증오, 칭찬, 혐오 등등의 용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 즉, 태도는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선호도의 의미를 포괄하는 구성 개념인 것이다(즉, Eagly & Chaiken, 1993).

태도 대상에 따라 그 개념은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는 브랜드 태도나 광고 태도 및 브랜드 충성도의 개념이 사용되고, 성격 심리학에서 자아와 관련된 태도는 자기 존중감(self-esteem)이나 자기 이미지(self-image)라고 불리고, 정치적 문제에서는 정당이나 후보 선호도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조직행동 분야에서는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 동일시(identification), 직무만족 등의 변수들이 태도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광학 연구에서는 관광지 애착도(destination attachment)나 관광지 만족도 등이 태도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고동우, 1998).

태도의 개념은 구체성-추상성이라는 인식의 수준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추상적 대상에 대한 호의 수준을 반영하는 태도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접근 가능성으로서의 선호도이다. 그래서 앞에서 진술한 다양한 수준의 용어들은 모두 광의의 태도 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여가태도의 개념도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의미로서의 넓은 의미의 여가 태도이며, 둘째는 구체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말그대로의 선호도 수준을 의미하는 협의의 여가 태도이다. 여가 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이 두 가지 수준의 범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협의의 차원인 구체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하는 여가 태도의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된다. 구체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긍정적일수록 해당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한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 Ajzen(1991)이 선행이론인 합리적 행위 이론(the reasoned action theory)을 수정 보완한 후 제시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여가 장면에서 검증되어 왔다(즉, Ajzen & Driver, 1991, 1992). 이들은 다섯 종류의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 의도를 측정하여 12개월 후 해당되는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유의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태도가 좋다고 해서 해당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과 같은 상황과 다른 개인차 변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Ajzen, 1991).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가 참여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논리는 다른 변수가 개입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즉, 구체적인 여가 태도는 여가 참여 행동의 유의한 선행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평균적인 여가 생활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광의의 여가 태도는 유의한 예언 변수가 된다. 사실 여가학 연구

의 역사에서 광의의 여가 태도는 다양한 용어와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은 일반적인 여가태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여가윤리척도(Crandall & Slivken, 1980), 여가 동기 척도(Ragheb & Beard 1983), 내재적 동기성향 척도(Weissinger & Bandalos, 1995; Iso-Ahola & Weissinger, 1990), 지각된 자유감 척도(즉, What Am I Doing Scale: Neulinger, 1981, 1986), 여가진단척도(Ellis & Witt, 1984; Witt & Ellis, 1985) 등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여가 태도의 개념을 더 깊이 세분화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아 태도(ego-attitude; 즉, Sherif & Cantril, 1947; Sherif & Hovland, 1961)의 측면을 강조하는 관여나 몰입과 같은 개념에 근거한 여가 관여(leisure involvement)라는 변수가 여가 참여를 예언하기 위한 유의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즉, Havitz & Dimanche, 1990; Havitz & Mannell, 2005; Kyle & Chick, 2002; Kyle & Mowen, 2005). 관여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 및 주제에 대하여 부여하는 자기와의 관련성을 의미하기 때문에(Zaichkowsky, 1985), 여가 관여는 여가활동에 대하여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를 뜻하며, 동기와 각성 및 흥미 수준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즉, Havitz & Dimanche, 1997, p.246; Rothschild, 1984, p. 216).

일반적인 태도 개념과 마찬가지로 여가 관여 역시 일반적 수준과 구체적인 수준에서 각각 측정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일관된 관여 수준을 지속적 관여(enduring involvement)라고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관여를 상황 관여(situational involvement)라고 한다. 지속적 관여와 상황관여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심리학과 소비자행동 분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여가 행동 연구 분야는 특히 최근 들어 다루어지고 있다(즉, Havitz & Mannell, 2005; Kyle & Chick, 2002; Kyle & Mowen, 2005). 다만 여기서 일반적인 여가 태도를 반영하는 개념은 바로 지속적 여가 관여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태도의 개념이 어떤 용어로 다루어지든, 일반적인 여가 행동에 대한 개인의 흥미, 관심, 동기 경향, 선호도 수준을 반영하는 여가태도의 수준은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것이다. 또한 개인의 여가 태도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개인의 여가 행동 가능성을 가장 잘 예언해주는 변수로 간주된다. 나아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여가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지수는 그 사회의 여가 지향성 수준을 가늠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의 표본을 대상으로 평균 여가 태도의 수준을 측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여가 활동의 선택을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여가 활동을 상징하여 탐구하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즉 전반적인 여가 태도에 국한하여 접근할 것이다.

#### 여가 경험의 두 가지 차원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일반적인 여가 태도는 ‘전반적인 여가 활동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호의성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가 태도와 관련된 여가 경험은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경험의 주관적 평가 측면이고, 둘째는 참여율이나 참여 유형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 지표들이다. 전자가 개인의 주관적인 혹은 심리적인 여가 경험이라면 후자는 객관적이고 사회적 여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주관적 여가 경험

우선 주관적인 경험을 먼저 고려해보자. 어떤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가 태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여가 활동에 대하여 내재적으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Iso-Ahola(1980)는 어떤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데 보상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활동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였다. 결국, 일생에 걸쳐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개인에게 내재적 보상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개인에 전반적인 여가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태도가 반드시 그 사람이 실제로 반드시 그것에 참여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많은 잠재적인 가외 변수가 개입할 것이기 때문이다(Ajzen, 1991). 다만 여가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가 참여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여가 체험을 지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가태도와 여가경험의 관계는 사실 양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가 참여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실제로 그 경험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역으로 여가 경험이 긍정적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내재적 보상이 되어(즉, Deci & Ryan, 1985) 초기의 태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가 태도와 주관적 여가 경험은 상호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의 구체적인 차원들 중 어떤 측면의 경험이 더 많이 여가 태도와 관련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여가 경험의 차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질적 차원의 여가경험은 여가활동

을 하는 동안 참여자가 지각하는 즉각적인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것은 일종의 내재적 보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여 여가 경험의 심리적 차원을 망라하여 정리한 사례를 극히 드문 편이다. 예외적으로 성영신 등(1996)은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여가 경험의 심리적 측면을 여가 활동의 맥락에 따라 다섯 범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자기결정감, 자기유능(향상)감, 자기표현감, 사회교류감, 자연교류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심리적 체험은 모두 재미 혹은 즐거움과 관련된 것들이며, 기존 내재적 동기 이론과도 조화를 이루는 내재적 보상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망라적 접근 외에 일부 선각자들은 구체적인 차원의 내재적 보상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플로우(flow)이다 (Csikszentmihalyi, 1988; 1990). 플로우란 주어진 과제 혹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일종의 극단적인 몰입 상태를 의미하며, 여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플로우에 이르는 조건과 삼매경 상태의 심리적 특성은 모두 8가지로 정리되어 제안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술과 도전의 조화, 몰아감(沒我感), 시간왜곡, 경험과 지각의 일치, 통제감, 주의집중, 구체적인 목표, 즉각적 피드백 등이다.

한편 내재적 동기이론을 망라한 Deci & Ryan(1991)에 의하면, 여가 경험은 전형적인 내재적 동기 기제를 따르고 있으며, 내재적 보상으로 작용하는 체험은 세 가지 기본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한 자기결정감, 유능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이 포함된다. 자기결정감에는 지각된 자유감은 물론 스스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

는 역량을 지각하는 것까지 포괄하며(고동우, 2002; Deci & Ryan, 1985), 유능감은 자기 능력을 확인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반영하며 flow의 개념에 맞닿아 있는 체험이다. 그리고 사회교류는 말 그대로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확인할 때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자기 표현의 경험은 특히 Samdahl(1988, 1992)이나 Kleiber(1999)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가가 자기표현의 맥락으로 고려될 때,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자기(true self)를 느끼기 쉽다고 지적한다. Samdahl(1992)은 특히 체험표집방법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가 장면이 비공식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식될 때 진정한 자기를 표현하는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자기 표현의 경험 측면에서 보면 비공식적 사회적 상황이 더 중요한 여가 맥락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p.28). 이러한 자기 표현은 결국 자기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현의 내용과 종류가 곧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 향상의 경험이 자기 정체성의 확장과 개선에 해당된다면, 자기 표현의 경험은 자기 정체성의 확인 과정에 해당될 것이다. 대부분의 여가 경험은 자기의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Kleiber, 1999). 이때 표현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 신체적 매력, 사회적 지위, 개인의 가치관, 다양한 여가 기술과 능력 및 지식 등은 여가 장면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들이다(성영신 등, 1996b; Kleiber, 1999).

자기 결정, 자기 향상(혹은 유능감), 자기 표현, 사회 관계의 욕구는 서구의 전통적인 여가 심리학자나 내재적 동기론자들이 제안한 여가 욕구였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여가심리학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

있던 성영신 등(1996)은 여가 경험이 물리적 환경 맥락 특히 자연 환경과의 상대적 교류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연교류의 차원’을 추가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환경의 맥락에서 나서 자라며, 그래서 자연에 대한 본능 수준의 욕구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여 자연을 교류의 대상으로 삼는 사상과 철학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자연을 동화의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정복과 탐험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영신 등(1996)의 여가 경험 분석 연구가 제시한 5가지 경험 차원들 중 자기결정감, 자기 향상감, 자기표현감 및 사회교류감 등은 이미 선구적인 여가 학자들의 분석과 일관된 것이며, 단지 자연교류감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flow 개념은 이들 맥락별 경험을 초월하는 수준의 정서적 차원의 심리적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경험들은 모두 내재적 보상으로서 작용할 것이며, 그래서 여가 태도와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 여가활동의 유형

여가 경험의 양적 측면은 이론적으로 가치가 적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가활동 유형이나 참여율 같은 주제들은 비교적 빈번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예컨대 여가 경험을 횡수와 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이나, 주어진 기간 동안 여가활동에 참여한 횡수, 활동의 유형, 그리고 참여한 시간 등은 대표적인 변수들이었다. 여가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이 바로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하는 여가 활동

의 종류는 그 수를 한정할 수 없으며, 활동의 단위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화권이나 지역마다 참여 가능한 여가활동의 수나 종류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초기 연구자들은 여가활동의 종류를 몇 개의 범주(혹은 유형)로 분류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류 모형은 다양한 여가 활동을 특징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분류한 여가 활동 범주별로 참가 빈도나 비율을 보고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06 여가백서).

그러나 여가 활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학자나 기관에서 제시한 분류 모형은 일관성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Lutzin(1973)은 동기 및 표현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사교활동, 문화활동, 자연활동, 정신활동 등 5가지로 분류하였고, 일본의 여가개발센터(1984)에서는 스포츠부문, 취미/창작부문, 오락부문, 관광행락부문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서태양·차석빈, 1996:132 재인용). 그러나 초기 연구자인 Epperson(1977)은 관람형, 야외레크레이션활동, 개인 및 소집단활동, 장비의존 스포츠 활동, 그리고 휴양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여가활동을 범주화한 경우가 있었는데,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1996)는 행락/관광활동, 사교활동, 근린활동, 감상/관람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유흥/오락활동, 기타활동 등 8가지 분류 모형을 제시하였고, 2006년 여가백서(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한 후 3000명의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각각의 참여율(복수응답)을 보고하였다. 간단히 보면 문화예술관람활동(12.3%), 문화예술참여활동

(5.8%), 스포츠관람활동(4.6%), 스포츠참여활동(6.8%), 관광활동(16.1%), 취미·오락활동(25.4%), 휴식활동(68.7), 기타사회활동(25.1%)으로 나타났다(p.47).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 분류의 모형들을 일일이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분류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가활동의 참여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결국 여가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가 경험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value)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여가태도와 여가 경험의 측면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가 실태를 탐색적으로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의 국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유형, 가장 즐거운 경험을 가져오는 여가활동의 유형, 전반적인 여가 태도, 여가활동을 통해 지각하는 주관적 경험 등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즐거운 여가활동의 유형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비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교는 여가 정체성 수준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가 태도와 주관적 여가 경험의 관계성이 두 나라 표본에서 다르게 나타나지도 비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가 태도에 대하여 주관적 여가 경험은 내재적 보상의 역할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경험의 차원별로 그 역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나라 표본에서, 다양한 차원의 주관적 여가 경험 요인들이 여가 태도와 관련된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여가 체험이 더 중요한지를 비교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가정은 한국의 여가 문화와 중국의 여가 문화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한국의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발전했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탐색적 수준의 가설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가설 1.**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은 한국인과 중국인 표본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 유형은 한국인과 중국인 표본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 유형의 일치 여부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전반적인 여가 태도 수준은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5.** 여가 경험의 구체적 차원별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지각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여가경험의 하위 차원별로 여가 태도에 관련된 정도는 다를 것이며, 그 패턴은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다를 것이다. 이 가설은 탐색적인 수준에서 진술된다.

#### 연구 방법 및 절차

##### 측정도구

#####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 분류 체계들 중

공통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4가지 여가활동 범주를 설정하였다. 각각 운동형 여가활동, 정신적/지적 여가활동, 휴식형 여가활동, 그리고 관광형 여가활동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범주별로 구체적인 여가활동의 목록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여가활동 유형별 예시한 여가활동 종목들이다.

- 운동형 여가활동 : 조깅, 체조,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등 31종
- 정신적/지적 여가활동: 컴퓨터/인터넷, 음악회, 연극참가 및 관람, 종교 등 10종
- 휴식형 여가활동: 낮잠, 환담, 산책, 사색 등 7종
- 관광형 여가활동: 숙박여행, 당일여행, 해외여행 등

이러한 여가활동을 범주를 제시한 후, 두 가지 질문(즉, 가장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을 하였다. 각각, “지난 한달 동안 주말에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와 “지난 한달 동안 주말에 가장 즐거웠던 여가활동의 유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가 그것이다. 응답은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여가활동일치도.** 이 변수는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설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가장 즐거운 경험을 가져오는 여가활동 유형의 일치 여부로 정의하였다. 여가활동 일치도는 상기한 두 가지 질문(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 유형)의 응답 항목이 동일하면 “일치”로 그것이 서로 다르면 “불일치”로 분류하였다.

**여가태도.** 여가태도는 전반적 여가 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 수준을 측정하는 수준에서 Crandall과 Slivken(1980)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여가태도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즉, 그래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여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여가경험.** 주관적 여가 경험은 질적 여가체험과 양적 여가 경험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우선 **질적 여가 체험**은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개인이 지각하는 즐거움의 수준으로 정의하였고, 개념적으로 6개 차원을 가정하였다. 처음 다섯 가지는 성영신 등(1996)이 분석한 질적 여가경험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Csikszentmihalyi의 flow 차원을 포함하였다. 그래서 6개 차원에 해당되는 심리적 체험 정도를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리커트형 5점 척도), 자료분석과정에서 척도순화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4개 요인 17개 문항을 질적 여가체험 측정 내용으로 삼았다.

**양적 여가경험**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일상 생활에서 여가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여가 시간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적다(1점) - 매우 많다(5점)의 5점 등간 척도상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기타.** 자료 분석을 위하여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소득(가구) 수준을 조사하였다. 총 설문지는 3쪽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지는 한국어판을 기준으로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과정은 공동연구자 중 중국유학을 한 한국인 1명과,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2명이 논의를 수행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 상기한 측정 척도와 추가 질문들은 우선 한국어로 작성한 다음, 중국에서 유학한 한국인 연구 보조원이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이를 다시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2명이 수정하였다. 그 다음에 그 수정본을 한국어 판으로 재번역하여 일치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여가 태도 척도의 경우는 원래 영어판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번역하여 이중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였다.

#### 조사 및 분석

총 3쪽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한국인 표본의 경우 대구지역 주민 320명을 편의 표집하여 2006년 12월 중에 3명의 조사요원이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중국인 표본조사는 중국인 연구보조원 2명이 베이징 주민 100명과 상하이 주민 100명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조사는 개별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중 불성실 응답자료 20부를 제외한 5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version 14를 이용하였다.

## 결 과

#### 표본의 기초자료 분석

응답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적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인 300명 응답자는 남성 144명(48.0%), 여성 156명(52.0%)으로 여성이 약간 많았다. 미혼자 181명(60.3%)가 기혼자 114명(38.0%)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 재학 및 졸업생이 189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101명(33.7%), 사무직이 69명(23.0%)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0.2세였고, 가구당 월소득 평균은 371만원이었으며, 편차가 컸다.

한편 중국인 200명의 표본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았고(53% vs 47%), 미혼자(53%)가 기혼자(44%)보다 다소 많았다. 직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33%),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8%). 그럼에도 학력 평가에선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중인 자가 가장 많았다(49.5%). 이런 현상은 중국의 직장인들이 한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아서, 시간제 학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보면, 중국인 표본에서 학생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많은 이들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중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평균 나이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인 30.8세 정도였다. 결국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나 한국인과 중국인 표본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 측정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가 태도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질적 여가경험 척도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들 척도에 대한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n=500)

구분	한국인		중국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44	48.0	106	53.0
	여	156	52.0	94	47.0
결혼여부	미혼	181	60.3	106	53.0
	기혼	114	38.0	88	44.0
	기타	5	1.7	6	3.0
평균연령	30.2세(sd 9.02)		31.8세(sd .65)		
직업	학생	101	33.7	16	8.0
	자영업	25	8.3	28	14.0
	전문직	34	11.3	66	33.0
	공무원	12	4.0	18	9.0
	사무직	69	23.0	19	9.5
	서비스업	15	5.0	13	6.5
	주부	17	5.7	13	6.5
	기타	27	9.0	27	13.5
가구당 평균월소득	371만원		5628위안		
학력	중졸 이하	9	3.0	27	13.5
	고등학교 졸업	40	13.3	36	18.0
	대재(전문대포함)	116	38.7	99	49.5
	전문대 졸업	44	14.7	34	17.0
	대학교 졸업	73	24.3	4	2.0
	대학원 졸업이상	18	6.0	0	0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가경험 척도는 하위 차원의 구조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 분석을 통하여 이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Crandall & Slivken(1980)의 여가태도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주축요인분석), 단

일 차원으로 확인되었고, 10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문항-총점 상관이 지나치게 낮아서 삭제하였다. 나머지 9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6으로서 탐색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고로 한국인 자료에서는 .75, 중국인 자료에서는 .70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여기서

표 2. 질적 여가경험 척도 요인분석 결과(N=500)

문항(5점척도)	F1: 자유와 몰입	F2: 자연 교류	F3: 통제감	F4: 유능감	F5: 사회 교류	h <sup>2</sup>
나는 여가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이 재미있다	.720					.58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다	.683					.59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도전과 성취감을 느끼는 편이다	.676					.57
나는 여가상황에서 자유로움을 많이 느낀다	.672					.54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그 활동 자체에 완전히 몰두하게 된다	.655					.56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나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잘 표현한다	.563					.42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에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544					.45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다	.468					.35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 즐겁다		.866				.78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과 교류하는 것이 즐겁다		.759				.63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가지는 편이다		.714				.56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을 정복하는 느낌을 가지곤 한다			.679			.55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즐겁다			.652			.50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를 표현하는 편이다			.506			.30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에 사회적 규범이나 의무감을 느끼는 편이다(역전문항)			.491			.38
여가생활은 나의 여러가지 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662		.50
여가생활을 통하여 내 자신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을 가진다				.652		.50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의 능력이나 기술을 인정해 주는 편이다				.605		.46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내 능력을 확인 하는 것이 재미있다				.581		.45
나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다				.652		.55
여가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친구/가족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즐겁다				.539		.44
나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 교류가 더 돈독해지고 있다				.502		.50
여가활동을 통하여 나의 사회적 교류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403			.470		.51
고유근	7.03	2.62	1.83	1.43	1.09	
누적설명량(%)	30.57	41.97	49.96	56.21	60.93	

주. 주축요인분석. varimax rotated. factor loading .40이하 생략함. KMO .870(p<.000)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후속 분석에서는 여가태도 점수를 9개 문항의 총합평균으로 처리하였다. 전체 평균 3.97(표준편차 .35)이었다. 여가태도 10문항의 내용은 부록으로 첨가하였다.

한편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적 여가경험 척도는 주축요인분석을 통하여 척도순화과정을 거쳤다. 여가 경험의 하위 차원들이 독립적일 것으로 전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인회전 방식은 직각회전(varimax)과 더불어 사각회전(oblimin)도 함께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회전 결과는 두 가지 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 사회과학에서 가장 자주 활용해온 직각회전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 scree 분석, 해석가능성, 누적설명량 및 고유근 등을 고려한 분석 절차 결과, 32개 문항 중 23개 문항이 비교적 해석 가능한 요인구조에 포함되었으며, 초기 척도 구성시 가정하였던 6개 차원의 경험 구조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5개 차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개 요인을 고정하여 회전한 23개 문항의 주축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자유와 몰입 차원, 자연교류차원, 통제감 차원, 유능감 차원, 사회교류차원 등으로 명명하였다. 자기향상체험, 환경교류체험, 활동주도성 체험, 그리고 자연통제감 차원이며, 이들의 누적 설명량은 60.9%로서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23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63으로서 비교적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속 분석에서는 각각의 요인을 여가 경험의 개별 차원으로 가정하였고, 각 차원의 경험 점수는 요인분석에서 도출한 요인점수를 활용하였다.

### 여가활동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장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가장 즐거운 여가 활동 유형’을 조사하였다(즉, 가설 1, 가설 2). 한국인 표본과 중국인 표본의 여가 활동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말에 가장 자주 하는 여가활동 유형을 국적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가활동 참여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6$ ).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은 다르지 않았다. 즉, 두 개 국적에서 모두 휴식형 여가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사실 서구 사회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관광형 여가활동에서 중국인인 한국인에 비해

표 3. 국적별 주말참여 여가활동 유형의 비율비교 (n=500)

참여여가활동 유형	한국인	중국인	전체
운동형 활동	55 (18.3%)	33 (16.5%)	88 (17.6%)
정신적/지적 활동	48 (16.0%)	26 (13.0%)	74 (14.8%)
휴식형 활동	171 (57.0%)	102 (51.0%)	273 (54.6%)
관광형 활동	26 (8.7%)	39 (19.5%)	65 (13.0%)
전체	300 (100%)	200 (100%)	500 (100%)

$X^2 = 12.58$  (df= 3),  $p = .006$ .  $\eta^2 = .159$

주. ( )는 국적별 비율

분명하게 더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마도 이 유형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적에 따른 여가활동의 유형 차이는 약 15.9%의 설명량을 보였다(즉,  $\eta^2$  값).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한편 주말에 가장 즐거웠던 여가활동 유형이 국적별로 다른지를 확인하였던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즉, 가설 2). 한국인과 중국인은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의 유형의 패턴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설2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집단 모두 휴식형 여가활동에서 가장 많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신적/지적 여가활동에 대한 지각 수준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정신적/지적 여가활동을 가장 즐거운 유형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19.3%였지만, 중국인은 단지 9.5%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운동형, 휴식형, 관광형 여가활동에 대해

선 중국인이 약간 많은 비율 수준에서 가장 즐거운 유형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국적의 효과는 13.4%로 나타났다(즉,  $\eta^2$  값).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즐거움의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가장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이 일치하느냐의 여부는 사실 여가 정체성의 강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일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안정적인 여가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여가 문화가 더 발달한 사회인 한국에서 두가지 유형의 일치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즉, 가설 3).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더 일찍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전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개 국적별로 자료를 재분류하여 두 가지 여가유형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여가활동 일치도는 국적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전체 500명 중 여가활동 유형이 일치하는 비율은 66.6%

표 4.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유형의 국적별 비율비교 (n=500)

참여여가활동 유형	한국인	중국인	전체
운동형 활동	61 (20.3%)	44 (22.0%)	88 (21.0%)
정신적/지적 활동	58 (19.3%)	19 (9.5%)	74 (15.4%)
휴식형 활동	117 (39.0%)	87 (43.5%)	273 (40.8%)
관광형 활동	64 (21.3%)	50 (25.0%)	65 (22.8%)
전체	300 (100%)	200 (100%)	500 (100%)

$X^2 = 8.99$  (df= 3),  $p=.029$ ,  $\eta^2=.134$

주. ( )는 국적별 비율

표 5. 국적별 여가활동 유형의 일치도 비교 (n=500)

여가활동 일치 여부	한국인	중국인	전체
불일치	94 (31.3%)	73 (36.50%)	167 (33.4%)
일치	206 (68.7%)	127 (63.5%)	333 (66.6%)
전체	300 (100%)	200 (100%)	500 (100%)

$X^2 = 1.44$  (df= 1),  $p=.230$ ,  $\eta^2=.054$

주. ( )는 국적별 비율

(333명)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한국인이나 중국인 모두 높은 편이었다. 일치율은 한국인이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가설3은 기각되었다.

국적에 따른 여가태도와 여가경험의 수준 비교

가설 4와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가태도와 5가지 여가 경험 요인의 국적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면,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인의 여가태도 점수가 중국인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가설4가 지지되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여가 경험은 각 차원별로 두 개 국적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자유와 몰입 차원, 자연교류감 차원 및 유능감 차원은 한국인 표본에서 더 높게 나온 반면, 통제감 요인과 사회교류 차원은 중국인 표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것이며, 한국인과 중국인은 여가 경험의 구체적인 차원별로 다른 지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

국인과 중국인은 각각 여가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는 즐거움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이 더 제도적으로 통제 받는 사회였음을 감안하여 해석하면, 중국인 여가활동을 통하여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통제감과 사회교류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인은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초점을 둔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적에 따른 여가태도와 여가경험의 관계 패턴 비교

여가태도가 다양한 여가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 태도가 경험의 선행변수일 수도 있고, 역으로 경험이 태도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여가경험의 다양한 측면들 중 어떤 것이 더 여가태도에 관련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개인마다 혹은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가문화가 다를 것으로 가정된 한국과 중국의 표본이 보여주는 두 가지 변수간 관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즉, 가설6). 국적별 자료를 분류하여 여가태도와 5가지 여가 경험 차원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의 결과를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 자료는 확연히 다른 상관행렬을 보여준다. 우선 한국인의 경우, 여가태도와 가장 큰 정적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이 자유와 몰입 차원이고, 자연교류감도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인다. 그런데 유능감과 사회교류감은 오히려 부적으로 유의하게 여가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한편 통제감은 여가태도와 관련이 거의 없는 여가 체험으로 확인된다. 결국, 한국인의 경우

표 6. 국적별 여가태도와 여가경험의 비교 (n=500)

측정변수	한국인 (300명)	중국인 (200명)	t값
여가태도	4.13(.49)	3.71(9.2)	9.27***
여가경험 자유와 몰입	.081(.89)	-.12(1.0)	2.36*
자연교류감	.195(.85)	-.29(.96)	5.95***
통제감	-.278(.78)	.41(.84)	-9.45***
유능감	.078(.84)	-.11(.93)	2.42*
사회교류감	-.055(.74)	.08(1.03)	-1.75#

주. #. p<.10, \*. p<.05, \*\*\*, p<.001.

표 7 . 국적별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 차원의 상관 계수 (n=500)

여가경험 차원	여가태도		표준 상관계수 차이검증 (Zr)
	한국인 (n=300)	중국인 (n=200)	
자유와 몰입	.491 (.538)**	.037 (.037)	5.453***
자연교류감	.361 (.378)**	.007 (.007)	4.038***
통제감	.004 (.004)	.066 (.066)	-.675(n.s.)
유능감	-.404 (-.430)**	-.623 (-.732)**	3.287***
사회교류감	-.484 (.530)**	.122 (-.205)	3.537***

주. ( )는 표준상관계수로 전환한 값.

\*\* p<.01, \*\*\* p<.001.

여가 태도가 높을수록 자유와 몰입경험 및 자연교류 경험이 긍정적이지만, 유능감과 사회교류감은 여가태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유능감 경험만이 여가태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나머지 다른 종류의 여가 경험은 여가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은 여가태도가 낮을수록 여가활동을 통하여 유능감 체험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가태도와 여가경험의 관련성은 중국인과 한국인 표본에서 대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와 몰입, 자연교류 경험, 사회교류 경험의 관련성은 한국인에게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능감의 부적 관련성을 중국인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여가 태도에 대한 통제감의 관

련성은 두 집단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가 표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가태도와 여가 경험이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문제로서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대도시 거주자인 한국인 300명과 중국인 200명의 자료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가설 검정의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가장 자주 참여하는 주말 여가활동의 유형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동일하게 휴식형 여가 활동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관광형 여가활동에서 중국인의 참여 비율은 한국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즉, 가설 1 지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결과는, 휴식의 필요성이 두 집단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중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관광형 여가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장 즐거운 경험을 주는 여가활동의 유형에서도 두 집단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정신적/지적 여가활동을 통한 즐거움 지각 수준이 중국인에 비해 한국인이 더 높았다(즉, 가설2 지지). 일반적으로 지적/정신적 여가활동의 참여는 학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즉, Mannell & Kleiber, 1997),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학력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 있다(즉, 표 1 참조).

셋째, 여가정체성의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가장 즐거운 여가

활동의 일치 여부는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 여가문화가 더 발달한 것으로 가정되는 한국인의 사례에서 그것의 일치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가설3)이 가능했지만,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아마도 여가활동 일치도가 여가문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종류, 어떤 수준의 여가활동이든 주관적 만족이 있다면 여가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발전이나 여가의 고급화 수준에 관계없이 가장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의 일치 여부는 개인적이며 주관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사전 예상과 다른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의 연구와 논리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전반적인 여가 태도는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높았다(가설4 지지). 이러한 결과는 여가문화의 발달이나 여가 생활의 중요성이 후기 산업 사회에서 더 강조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다섯째, 여가 경험의 질적 수준인 5가지 요인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높았다. 다만 통제감 차원과 사회교류감 차원의 요인은 중국인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가 경험 지각 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5를 지지하는 것이며, 여가 경험의 차원별 중요성이 두 국적별로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런 결과는 결국 한국과 중국의 여가 문화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 자유와 몰입, 자연교류, 유능감 등 극히 개인적인 여유를 추구한다면, 중국인에게 더 높게 추구되는 통제감과 사회교류감은 대상을 요구하는 여가 맥락에서 지각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통제 사회에 대한

도전 혹은 반작용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과는 여가태도와 여가 경험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여가 경험의 다양한 차원별로 여가 태도에 관련된 정도가 한국인과 중국인 자료에서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경우는 자유/몰입차원과 자연교류감 차원이 여가 태도에 유의한 수준의 정적 관련성이 있었으며, 유능감과 사회교류감 차원은 각각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한국인들은 여가태도가 높을 수록 자유/몰입 경험과 자연교류감 경험을 많이 하지만, 여가태도가 높을수록 유능감 경험과 사회교류감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인의 자료에서는 유능감과 여가태도 사이에서만 부적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발견되었고 다른 경험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의 경우 여가태도와 여가 경험의 세부 차원 사이의 패턴이 명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유능감 차원과 여가 태도가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것과 통제감 차원은 여가 태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의 경우 여가 경험의 다양한 차원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여가태도와 관련이 있는 반면, 중국인들은 경험과 태도 사이의 관련성이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단,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공통적으로 여가 태도가 높을수록 유능감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탐색적이다. 즉, 사전에 분명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결과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여가문화의 차이를 염두에 둔 탐색적 분석의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야 하는 새로운 연구 문제를 유발한다. 문화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향후 연구 과제가 된다.

이처럼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적인 수준의 본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알려준다. 첫째, 기술적 수준이긴 하지만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여가문화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여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참여 패턴 및 경험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향후 여가 시장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은 셈이다. 둘째, 여가 경험과 여가 태도의 관계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려한 단순한 정적 관계가 아니라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문화차이가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여가경험의 질적 차원들이 상이한 기제를 통해 여가 태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여가행동 연구의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 구체적인 경험 차원이 여가태도와 관련되는 방식이 다른 차원의 경험이 관련 기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내재적 보상의 효과 기제가 경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전통적인 내재적 동기이론의 개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여가 마케팅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가활동의 유형 차이나,

여가 태도의 상대적 수준차이도 시장 관리의 단초가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가활동을 통하여 추구하거나 지각하는 여가 경험의 질적 차이가 두 국민 간에 다르다는 것은 여가 마케팅의 컨셉이 다르게 도입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나아가 다른 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도 충분한 차이가 발견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한국과 중국의 여가 인식의 차이는 일본이나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도 다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다. 예컨대, 한국인과 중국인 표본이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즉, 조사 표본이 한국인과 중국인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대구시민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국에서는 상하이와 베이징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인구통계의 특징에서도 한국인의 경우 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인과 중국인을 모두 대표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우면 다만 이런 결과를 토대로 향후 더 면밀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가태도와 여가경험의 관계에 대한 충분하고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탐색적 수준의 접근이다보니 이들 변수간 관계에 대한 통찰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문제는 향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군이나 소득 수준은 전통적으로 여가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고려한 여가 태도와 여가 경험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도 향후 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여가태도, 여가경험, 여가활동 유형 등이 과연 충분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양한 여가태도의 측면을 망라했는지, 그리고 여가경험의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까지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여가활동의 유형 분류가 타당한지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동우 (1998). 선행 관광행동연구의 비판적 고찰: ATR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1(1), 207-229.

고동우 (2002). 여가동기와 체험의 이해: 이중 추동모형과 이중통로 여가체험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3(3), 1-23.

고동우 (2007). 여가학의 이해. 세림출판.

김재현 · 박정훈 (2001).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태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2(3), 333-334.

김정근 (1998). 여가태도,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1(2), 222-236.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1996). 부산시민의 여가 유형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pp.25-26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006 여가백서. 동기관

서태양 · 차석빈 (1996). 여가론. 대왕사. p.132.

성영신 · 고동우 · 정준호 (1996). 여가경험의 심리적 본질: 재미란 무엇인가? *소비자학*

*연구*, 7(2), 35-57.

Ajzen, I. (1991). Benefits of leisur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B. L. Driver, P. J. Brown and G. L. Peterson (Eds.), *Benefits of leisure*(pp.331-350).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Ajzen, I. & B. L. Driver (1991). Predic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from behavioral, normative and control belief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13, 185-204.

Ajzen, I. & Driver. B. L.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453-474.

Beard, J. G., & Ragheb, M. G. (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Perennial.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1988,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andall, R., & Slivken, K. (1980). Leisure attitudes and their measurement. In S. E. Iso-Ahola(Ed.),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creation* (pp. 261-284).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tion in personality. In R. Dienstbier (Ed.), *Nebraska Symposium*

- on Motivation: Vol.38.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237-288). Lincoln, NE: Univ. of Nebraska Press.
- Driver, B. & Knopf, R. C. (1977). Personality, outdoor recreation, and expected consequences. *Environment and Behavior*, 9, 169-193.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 Ellis, G. D. & Witt, P. A. (1984). The measurement of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 110-123.
- Epperson, A. F. (1977). *Private and Commercial Recreation*. NY: John Wiley and Sons. pp.12-16.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Reading, MA: Addison-Wesley.
- Haggard, L. M., & Williams, D. R. (1992). Identity Affirmation through Leisure Activities: Leisure symbols of the self.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1-18.
- Havitz, M. E., & Dimanche, F. (1990). Propositions for test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in recreational and tourism contexts. *Leisure Sciences*, 12, 179-195.
- Havitz, M. E., & Dimanche, F. (1997). Leisure involvement revisited: Coceptual conundrum and measurement adva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 245-278.
- Havitz, M. E., & Mannell, R. C. (2005). Enduring involvement, situational involvement, and flow in leisure and non-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2), 152-177.
- Iso-Ahola, S. E. (1980a).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owa: Wm. C. Brown.
- Iso-Ahola, S. E., & Weissinger, E. (1990). Perceptions of boredom in leisure: Conceptualiza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eisure Boredom Sca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1-17.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 (1992).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 1-12.
- Kleiber, D. A.(1999). *Leisure Exprience and Human Development: A dialectical interpretation*. NY: Basic Books.
- Kleiber, D .A., & Kirshnit, C. (1991). Sport involvement and identity formation. In L. Diamant (Ed.), *Mnd-body maturity: Psychological approaches to sport, exercise and fitness*. NY: Hemisphere.
- Kyle, G. & Chick, G. (2002). The social nature of leisure involv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4), 426-448.
- Kyle, G. T., & Mowen, A. J. (2005). An examination of the leisure involvement-agency commitment relationship.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3), 342-363.
- Mannell, R. C., & Kleiber, D.A.(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PA: Venture Publishing.
- Neulinger, J.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2nd ed.).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
- Neulinger, J. (1986). *What am I doing? The WAID: An introductory guide designed to help you measu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your life*. Dolgeville, NY: The Leisure Institute.
- Neulinger, J. & Breit, M. (1969). Attitude

- dimension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 255-261.
- Paluba, G. V., & Neulinger, J. (1976). Stereotypes based on free time activities. *Loisir et Société / Society and Leisure*, 3, 89-95.
- Petty, R. E., & Cacioppo, J. T. (1981). *Attitudes and Persuasion: Classic and Contemporary Approaches*. Dubuque, IA: Wm. C. Brown.
- Rothschild, M. (1984). Perspectives on involvement: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16-217..
- Samdahl, D. M. (1988). A symbolic interactionist model of leisure: Theory and empirical support. *Leisure Sciences*, 10(1), 27-39.
- Samdahl, D. M. (1992). Leisure in our lives: Exploring the common leisure occa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19-32.
- Shamir, B. (1992). Some correlates of leisure identity salience: Three exploratory stud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301-323.
- Sherif, M., & Cantril, H. (1947), *The Psychology of Ego-Involvements*. NY: Wiley.
- Sherif, M. & Hovland, C. J. (1961). *Social judgment: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reaction to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New Haven, CT: Greenwood.
- Stebbins, R. A.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PQ: McGill-Queen's University.
- Weissing, E., & Bandalos, D. L. (1995).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cale to measure intrinsic motivation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 379-400.
- Witt, P. A., & Ellis, G. D. (1984). The leisure diagnostic battery: Measuring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Loisir et Société / Society and Leisure*, 7, 109-124.
- Zaichkowsky, J. L. (1990).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Dec.), 341-352.

## **A Comparison on the Leisure Attitudes and Leisure Experi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 Metropolitans**

**Ko, Dong-Woo**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overall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experi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Overall leisure attitude, subjective leisure experiences, most frequently participating leisure activity, most pleasurable leisure activity, and different correlated patterns of leisure attitude and sub-dimensions of subjective leisure experienc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All six hypotheses were tested on the data sampled from 300 Korean and 200 Chinese who live in metropolitan.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Korean sample had higher leisure attitude, than Chinese. Second, each 5 sub-dimensions of subjective leisure experiences were differently perceived between two groups. Third, most frequently participating leisure activity and most pleasurable leisure activ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nd finally, the difference of correlated patterns of leisure attitude and every sub-dimensions of subjective leisure experiences were identified on two samples. In discussion and conclusion, som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included.

*Key words* : Leisure attitude, leisure experience, subjective leisure experience, types of leisure activities.